

## NHỮNG ĐIỀU CHÚ Ý KHI THỰC HIỆN CÂU GHÉP ĐĂNG LẬP

### 문장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

**Thứ nhất :**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에 대한 제약의 문제이다.

“았/었”이나 “겠”과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. 연결어미 중에는 두 문장의 시제가 과거 또는 미래일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있고, 쓸 수 없는 것도 있으며.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다.

Ví dụ 열심히 공부했어요.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.

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.

미래시제나 의지, 츠측 등의 의미를 갖는 “겠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

이 소설을 잘 팔리겠다. 저 소설은 잘 안 팔리겠다.

이 소설을 잘 팔리겠지만 저 소설을 잘 안 팔리겠다.

**Thứ hai:**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 일치 제약의 문제이다. 즉. 연결어미 중에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어미들이 있는가 하면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되는 어미들도 있다.

Ví dụ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.

그런데 연결어미 중에는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하는 경우도 있다.

Ví dụ 형이 결혼을 한달 하자 식구들이 모두 기뻐했다.

**Thứ ba:** 결합하는 서술어에 대한 제약의 문제이다. 연결어미 중에는 동사와 형용사, “이(다)” 모두와 쓰일 수 있는 어미들이 있는가 하면, 이들 중 한 두 부류하고만 쓰이는 어미들도 있다.

Ví dụ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도 잘하게 될 거예요.

- **Thứ tư:** 문장 종류 제약의 문제이다. 연결어미 중에는 모든 종류의 문장과 잘 어울리는 어미들이 있는가 하면 명령문이나 청유문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어미들도 있다.

Ví dụ   더우니까 창문을 열자 (o)

          더워서 창문을 열자 (x)

- **Thứ năm:** 부정문 제약의 문제이다. 연결 어미 중에는 “아니/안”이나 “못”, “지 않다/못하다” 등과 같은 부정의 표현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.

Ví dụ   그는 숙제를 하는라고 잠을 못 잤다.